

7박8일 강행군 ... '세일즈 외교' 주력

■ 박대통령 귀국 ... 러·베트남 순방 성과

G20 정상회의서 '근혜 노믹스' 알려

박근혜 대통령은 7박8일 간의 러시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날 오후 4시45분께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나와 박 대통령의 귀국을 맞았다.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다자외교 무대에 선데 이어 4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및 국민방문 국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하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선도발전'을 포함한 2차례의 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즉 '근혜 노믹스'를 알렸으며

이러한 내용은 G20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에 상당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과 차례로 가진 양자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으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과도 비공식 만남을 가지며 교분을 쌓았다.
3박4일간의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른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아제안 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민방문, 국가 권력서열 1~4위 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는 최상급 한대속에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쓰촨 성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베트남 원전개발을 비롯한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러시아·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영접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박 대통령은 10일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찌민시를 당일치기로 방문, 우리 기업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레 탄 하이 당서기와 레 황 푸언 시장이 공동주최한 오찬에 참

석, 우리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베트남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호찌민 전 주석의 묘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 헌화하고 옛 집무실을 찾음으로써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의 '악연'을 뒤로하고 상징적으로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연합뉴스

국고지원 10억원 이상 국제행사 기초자치단체, 단독 유치 못한다

문화·스포츠·산업행사 제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1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단독으로 유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어려운 나라 살림을 감안해 앞으로 지자체가 유치할 국내외 문화·스포츠·산업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국제행사·경기대회 지원예산은 부처요구액 대비 3분의 1을 삭감해 올해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재정관리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국내 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렵다"며 "공공부문부터 살수범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국제행사에 대해 유치 신청단계부터 사업타당성, 투자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할 예정이다. 10억원 이상 국고를 지원 받으려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은 적정 수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 등을 줄여 내년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영암서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막

자연재해 대응 농업방안 논의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해 창설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가 11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개막했다.
2014년 총회를 앞두고 사전 회의 성격으로 열린 이번 실무위원회는 전남과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자치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13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 1996년 9월 발족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은 현재 6개국 71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1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공동사업 발굴과 업무정보 등을 교류하고 있다. /오광필기자 kroh@kwangju.co.kr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4개국 9명의 발표자들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을 제안하고, 일본의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 몽골의 고비습베르 아이막 농업 지구 토양화자인 에르덴바이르 주민과 중국 산둥성의 농업정책 위용더 처장은 농업부문의 정보와 기술교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신안 천일염전과 장흥 우드랜드, 보성 차밭 등지를 현지 시찰을 한다.
향년 2014년 열리는 총회는 6개국 71개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오광필기자 kroh@kwangju.co.kr

“추석 연휴 하루만 쉬고 공장가동 예정”

전남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가동 확정 반석 본격적 가동은 23일 이후에나 가능할 듯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1일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자 “결정에 환영한다며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점이 늦어지면 질수록 기업들의 피해가 커진다고 남북에 재가동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입주기업인 안도 흥익산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손해액이 정산되지는 않았지만 바이어의 주문 물량을 못 맞추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며 “재가동 날짜가 확정돼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한재권 대표 공동위원장도 “남북이 협상은 전천후 하더라도 공장 가동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날짜가 확정돼 바이어 설득과 주문을 받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공단에 들어가 북측 근로자들과 공장을 정리하고 망가진 설비를 보수하며 재가동 준비를 했다. 섬유·봉제업을 비롯한 다수의 업체는 이미 지난 주에 재가동 준비를 마쳤으며 기계·전자처럼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도 부분 가동이 가능한

상태다.
문창섭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설비보수는 다 끝내고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제 생산계획을 세워 필요한 원부자재를 확보하고 바이어를 접촉해 주문을 받아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다수의 입주기업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하루 정도만 쉬고 나머지 날에는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가동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흥익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직 상세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서도 “관련 인원을 투입해 설비와 보수를 끝내는 등 당장 가동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전세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도 몰수해야”

민주 “경호 줄이고 국립묘지 안장 금지도”

민주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 1672억원 납부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자 등 비자금을 몰수하고 바이어를 접촉해 주문을 받아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은 (전세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불린 재산만 1조원이라고 한다”면서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이므로 몰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전세 일가 추징금 회수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편법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검찰은 엄격한 자료로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전세 일가의) 자진납부 (계획)를 믿을 수 없다”면서 “16년간 추징금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광주에서 시민들을 살육했다”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데, 학살한 사람과 같이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1년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경호에 쓰고 있는데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박찬우 차관, 광주시청서 ‘정부 3.0’ 특강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공사·공단간부 등 600여명을 상대로 ‘정부3.0’ 특강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한 정부 3.0’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 차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 추진 배경, 중점 추진 전략을 비롯해 ▲소통하는 투명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세부 추

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광주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과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뒤 올해 3월 차관으로 승진, ‘정부 3.0’ 전도사를 자임해 왔다.
‘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기본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용산동 웨딩홀
대지권 1924㎡ 건 물 3290㎡
감정가격 47억3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건 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양 사무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러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시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6-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정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시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복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요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